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비판 제목: 비판에 건강하기 성경:마태7장1-5절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7:1-5)

비판에 대해서 건강할 필요가 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어서도 건강하지 않다.

비판하지 않는다고 쓰고 건강한 소리까지 내지 않으면 않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1. 인격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다.

2.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훼방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개 이런 것들은 마귀적인 것들이다.

-대개 자신의 불이익, 미움, 질투, 욕심 등이 작용하면 비판하기 쉽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판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비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칭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힘들 경우에는 과거나 미래를 보면서 때로는 창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이 평가는 실로 전체적인 평

가가 아니고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판과 평가는 다르다. 평가는 개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비판은 그 속에 판단이 들어간다. 즉, 이미 판사가 되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사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비판이다.

평가란 아직 판사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또 상대방을 변호하고 자신에게는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쓴소리는 아니다.

쓴소리는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나의 마음에 어떤 슬픈 감정이나, 어떤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 때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도 무작정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할 필요는 있다. 대화를 이어 가면서 비판과 오해와 이해가 상충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심지어는 자존심이나 관계까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적대적이거나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을 것처럼 하지는 말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물론 상대가 악해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럴때는 여러 가지 상식이나 법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식을 넓히고, 최종적으로 성경의 가치로 판단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거짓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다.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때인데, 이때는 마귀적인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적 투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 될 수 있다.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간에 필요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고, 감정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결코 비판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비판받는 일이 없어진다.

2.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긍정적인 해석만 내리라는 뜻은 아니다.

3. 오히려 마귀의 악한 해석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자괴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4. 삶이란 선과 악의 투쟁이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비판으로가 아니라 건강한 평가로 이기며, 결코 인격 침해로 가서는 않된다.

5. 내 스스로가 비판에 건강할 필요가 있다. 첩판을 깔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에 대해서 건강하라는 뜻이다.

6. 가장 중요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건강한 생각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자.

<찬양예배>

주제: 징계 제목: 징계와 코칭 말씀: 히브리서 12장1-13절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 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12:1-13)

징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아직 징계를 소화해 낼 정도로 건
강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가 건강하지 않는 채로 있는 순간 만큼을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게 된다.

스트레스를 이길 정도로 강하지 아니하면 그는 더욱 힘겨운 삶을 살
아갈 수 밖에 없다.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

1. 밥을 잘 먹어야 한다. 날마다. 열심히. 많이 먹어야 한다.

2.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 감염을 막아라. 크린 룸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감염에 강해야 한다는 뜻.

-감염에 건강하게 대처하라. 만지지 말고 긁지 말라. 자주 만지면
스트레스에 약하게 된다.

-영적으로 민감하자. 영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유의미한 악한 증
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자.

-결사적으로 죄와 싸우자.

-죄 앞에서 담대하지 아니하면 죄는 내 살을 파고든다.

3. 멧집을 키우자. 희생이나, 섬김, 배반, 십자가 등에 힘겨워 하지
말자. 넉넉히 이기자. 무서워 하는 것이 있으면 끌려 다닌다.

4. 징계를 달게 받자. 지도자에게 순복하자. 낙심 금지. 순전히 받아
들이며 다른 생각을 금하자.

-설명이 힘들 경우도 있다. 악한 것은 권위자가 무조건 금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신다.

-선이 강요당해서 약해지는게 아니라, 악이 방치 되어서 약해진다.

-악이 방지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교역자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징계를 달게 받으라. 교역자에게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징계를 달게 받아 들이라.

-그러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막아진다.